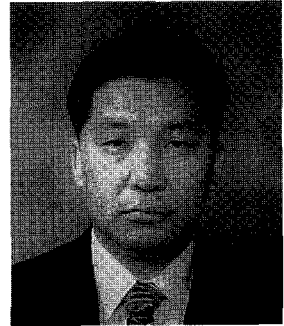


# “시급한 농산물의 파렛트화 그중요성과 문제점의 해결방안”

“물류사각지대”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농산물유통 및 물류개선을  
위한 대책을 실전을 통한 전문  
가에게 물어본다.

(편집자 주)



허 식  
샘트론 코리아 대표이사

## 1.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과 파렛트화

(1)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 강화는 첫째, 국내 소비자 물가를 낮추거나 안정시킬 수 있으며, 둘째,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으며 셋째, 외국 농산물의 수입 절감 효과 등 여러가지 메리트들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2) 농산물의 경쟁력은 다수확 품종 등의 개발,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생산 자동화 내지는 기계화, 선별, 포장의 기계화, 물류비용의 절감 등 크게 네 가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품종개발 및 생산의 기계화는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선별 포장의 기계화, 물류비용 절감 노력 등은 정부 및 생산자 단체, 상인 연합회, 대형 할인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선진국처럼 포장할 때 거의 모든 농산물을 파렛트 위에 올려 모든 유통 단계에서도 파렛타이징된 상태로 유통시키므로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상품의 손상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은 요원하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높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은 물류비용을 줄여야 하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농산물이 파렛타이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2.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현실과 문제점

(1) 농산물은 대부분 그물망, 골판지 BOX, PP 마대, 지대 등에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판지 BOX의 경우는 규격만 맞으면 파렛트화가 가능하지만 그물망이나 PP마대, 지대, 필름 백 등은 계절에 따라 불가능한 것들도 많으며 설사된다하더라도 화물 운송시 적재 효율

을 높이기 위해 높이 쌓을 경우 무너져 내리는 문제점, 높이 쌓는데 따른 작업상의 어려움, 농산물의 특성상 통풍이 잘되어야만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2)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농산물의 파렛타이징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파렛타이징 NET의 개발이나 AUTO 파렛타이징 MACHINE의 개발 등 파렛트 관련 산업의 발전 없이는 농산물 파렛트화는 요원하다.

(3) 사례 : 쌀과 양파의 경우

①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를 보자

파렛트화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 정도는 이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적재효율을 올리기 위해 10단 이상 높이 쌓아야 될 경우 첫째, 작업이 어렵고 둘째, 운송 중 쉽게 무너지므로 현장에서는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자동 내지는 반자동이라도 16단-20단까지 높이 쌓기가 용이하고, 파렛타이징 NET등을 이용 운송 중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 전에 파렛트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② 양파나 마늘의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물망 자체가 4단 이상 파렛트위에 적재할 수 없는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파렛타이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는 파렛트에 적재할 수 있는 그물망(LENO-NET, RACHELL-NET)으로의 전환이 파렛타이징의 KEY이며, 즉 그물망을 바꾸지 않는 한 파렛타이징이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물류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외국과의 비교 사례

(양파의 경우 : 자료참조)

(1) 얼마전 스페인으로부터 양파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지 양파 포장센터(PACKING HOUSE)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1일 약 360톤의 양파를 자동화 라인을 통하여 선별, 포장하여 파렛트에 1톤씩 적재, 파렛타이징 NET(망)으로 싼 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 지역, U.A.E,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중동 지역, 그리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까지도 수출하고 있었다.

스페인 양파의 연간 생산량은 약 700,000t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국내 소비는 연간 500,000t 정도로 나머지 200,000t 정도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2) 1995년 우리나라는 양파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약 900,000t 정도가 생산 되어 국내 수요인 650,000t 정도를 제외하고 250,000t 정도가 남았다. 당연히 양파 값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세계 최대 양파 수입국인 일본을 옆에 두고도 겨우 14,000t 정도만 수출하는데 그치고 나머지는 거의 썩혀서 버렸다. 올해와 같이 생산이 수요보다 50,000t 정도만 모자라도 가격은 폭등하여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있다.

(3) 우리도 매년 700,000t 내지 900,000t 정도를 생산하여 스페인처럼 국내 수요량인 약 650,000t을 제외한 나머지 잔량을 일본 및 대만 등지로 수출할 수 있다면, 양파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도 포장센터의 증설 및 파렛타이징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으로 많은 양을 빠른 시일

내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 4. 시급한 농산물의 파렛트화를 위하여

우선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내 유통이나 수출이나 모든 면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 생산자 단체, 저장업체 상인, 소비자, 이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

(1) 첫째, 농림부는 농산물의 파렛타이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파렛트 및 파렛트 관련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 파렛타이징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2)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 미곡 처리장, 포장센터, 물류센터 등도 파렛타이징과 연계하여 파렛타이징 시설이 들어가는 업체를 선별 지원하여야만 한다.

(3) 셋째, 기존 포장센터 등에서 출고된 규격 포장 제품이 가락시장등 대도시 소비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기존 중매인들의 기득권 상실 우려로 인한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량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제도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한다.

(4) 넷째, 대도시 공영 도매 시장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파렛타이징 되지 않는 농산물은 반입을 금지하여야만 한다.

(5) 다섯째, 저장업자, 대형 할인점 또는 상인들은 농산물의 수급만으로 단기 차익을 노릴것이 아니라, 중간 경비, 즉 물류비 등을 줄이는 노력을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수익을 취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을 낮고 안정되게 공급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참고로 파렛트를 사용하는 스페인과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양파 유통비용을 비교해 보았다.

### ◆양파의 유통비용 비교 분석◆

	한 국	스 페 인
양파물대 Kg당 200원	₩200,000/t	₩200,000/t
선별, 포장 작업비	₩40,000/t	₩40,000/t
포장자재비	₩3,500/t	₩7,500/t
파렛트	사용하지 않음	₩6,000/t
파렛타이징망	사용하지 않음	₩1,600/t
상차비	₩7,500/t	₩500/t
하차비	₩5,000/t	₩500/t
상차비(수입업자 또는 국내 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출고할 경우)	₩7,500/t	₩500/t
중포장	₩35,000/t	
하차비	₩5,000/t	₩500/t
소포장	₩150,000/t	₩50,000/t
상차비	₩7,500/t	₩500/t
운임(밭->포장센터, 포장센터·소비자->도매시장, 도매시장->소매점)	₩45,000/t	₩35,000/t
상품손실비(수작업으로 상, 하차할 경우, 양파가격 Kg 200원)	10% ₩20,000/t	3% ₩6,000/t
(소비자 도착가격)	₩526,000/t	₩312,600/t
이익금(도매 10%, 소매 20%)	₩52,600/t, ₩115,720/t	₩31,260/t, ₩68,772/t
최종 소비자 가격	₩694,320/t(Kg당 694원)	₩412,632/t(Kg당 694원)